

의안번호	제619호
의결 연월일	2014년 2월 일 (제327회)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2월 1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619
----------	-----

제안연월일 : 2014년 2월 18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지역에서 발병하더니 급기야 AI 청정지역인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도 발병함
- AI는 2003년 이후 2~3년을 주기로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 하고, AI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과
위원실, 기획재정부 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갑오년 새해 벽두부터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지역에서 발병하더니 급기야 우리 충청북도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도 발병하여 도민 모두는 AI 진압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AI 청정지역이었던 충북은 이번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깊은 근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현재 AI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6건이 신고되어, 그 중 20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우리 도에는 3건이 발생하여 진천은 36호 76만여 마리를,

음성은 6호 1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AI는 2003년 이후 2~3년을 주기로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거기에다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방역 비용, 가금류 살처분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AI라는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로 늘어난 복지비 지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 하고, 이번 AI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하나, 축산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방역 초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하라!

하나,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

2014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